

보도시점 2023. 12. 21.(목) 18:00 (2023. 12. 22.(금) 조간)

고용노동부 장관, 호텔업계 현장 목소리 듣고 외국인력 지원방안 논의!

- 호텔업계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력 활용 등 개선방안 논의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1일(목), 서울 소재 'L7강남 호텔'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참석한 호텔·콘도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업계 인력난 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외국인력(E-9) 활용*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12.8. 「제8차 국가관광 전략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호텔·콘도업의 외국인력(E-9) 활용 방안 마련·추진하기로 발표

최근 호텔·콘도업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외 관광객의 숙박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객실 청소 등 업무에 내국인 보조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객실 숙박(만명)/이용률(%): ('20) 2,099/39.1 → ('21) 3,250/45.4 → ('22) 4,479/58.8

이에, 정부는 올해 3차례에 걸친(3월, 7월, 10월) 관계부처 합동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통해 현장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음식업계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 취업지원금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 ▲주거·교통비 지원, ▲빈 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기간 확대 등

'22년부터 방문취업동포(H-2)의 숙박업 취업을 허용하고, 재외동포(F-4) 및 유학생(D-2)의 숙박업 취업 허용을 확대했으나, 이 분야의 외국인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전보다 감소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 숙박·음식 분야 외국인 취업자 수 감소('18년: 125천 → '22년: 114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호텔·콘도업계가 당면한 인력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합리적인 수준의 외국인력(E-9) 활용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정식 장관이 현장을 찾았다.

객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객실 청소를 담당하던 동료들이 퇴사하고 신규 채용이 바로 되지 않아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고충을 호소했고, L7호텔 관계자도 “임금 인상, 야간 교통비 지원, 숙식 제공 등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객실 청소 등 보조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며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유용중 호텔협회장은 “호텔 객실 청소업무를 내국인 취업 기피는 이미 만성화되어 있어, 외국인력의 고용 없이는 증가 추세인 관광객 숙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정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조속한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호텔·콘도업의 인력난에 깊이 공감하고, 조금이나마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현장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외국인력 활용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업종별 인력수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업종의 주무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추가를 탄력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며,

“외국인력 규모가 늘어난 만큼 고용부 차원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여건 보호 및 체류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업계 및 사업주 자체의 이들에 대한 고용관리 및 체류 지원 등에 대한 세심한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붙임1] 호텔 현장 방문 개요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TF	책임자	팀 장	최재윤 (044-202-7735)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정석 (044-202-7223) 조혜수 (044-202-7737)

붙임 1

호텔 현장 방문 개요

□ **[일시]** '23. 12. 21.(목), 18:00 ~ 19:20 (1시간 20분)

□ **[장소]** L7 강남(강남구 삼성동, 4성급)

□ **[참석]** 정부, 호텔·콘도업계 관계자, 현장 관계자 등 15명 내외

○ (고용부) 장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등

○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 (업계 관계자) 호텔협회장·콘도협회장, 호텔·콘도업체 대표* 등

* 서울 소재 호텔(포포인츠 호텔, AC호텔) 및 강원 소재 콘도(현대수리조트) 대표 등

○ (현장 관계자) L7강남 총괄관리자(총지배인) 및 근로자 등

□ **주요 내용**

○ 호텔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주 및 근로자 등 격려·면담

○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인력애로 청취 및 개선방안 등 논의

□ **세부 일정**

※ 장관 인사말씀까지 공개

구분	시 간		주요 내용	장소
1부	18:00 ~ 18:10	10'	▶ 호텔 현장 직원 격려	9층 호텔(로비) → 10층 레스토랑
	18:10 ~ 18:30	20'	▶ L7 강남 노·사 차담회	9층 TALK&TALK 룸
2부	18:30 ~ 18:3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9층 TALK&PLAY 룸
	18:35 ~ 18:40	5'	▶ 장관 인사 말씀	
	18:40 ~ 19:10	30'	▶ 간담회 - 호텔콘도업 인력난 현황 및 외국인력 활용 방안 등 논의 - 호텔콘도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19:10 ~ 19:15	5'	▶ 장관 마무리 말씀 및 폐회	
	19:15 ~ 19:20	5'	▶ 기념촬영	

인사 말씀

-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 먼저, 연말에 각종 연회 및 행사 준비로 여유가 없으실 텐데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L7강남 호텔 관계자 분들과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호텔협회장님, 콘도협회장님 및 각 호텔·콘도 대표님, 그리고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계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 작년 11월 15일에도 호텔협회장님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호텔·콘도업 내 H-2 고용 허용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그 당시에 호텔·콘도업계의 구인난에 대해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호텔 현장을 찾게 되니, 업계에서 겪고 계신 구인난이 오늘의 이 매서운 한파처럼 혹독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그럼에도 오늘 다시금 호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북적거리는 관광객들과 함께 들뜬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듯하여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허가제 확대·개편

- 최근 생산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난 심화에 따라 다양한 업종에서 더 많은 외국인근로자(E-9)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내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합동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함으로써, 현장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업계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 및 취업지원금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외국인력 정책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우선, 고용허가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채용 한도를 2배 수준으로 늘리고,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금년 12만명에서 내년에는 16만 5천명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종식 이후 업황이 나아지고 있는 서비스업에서의 외국인력 활용 요구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택배업·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을 새롭게 허용하였고, 내년부터는 음식점업*까지 시범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 100개 지역 한식업의 주방보조원 대상 고용허가제 시범 허용(11.27.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관계부처 합동 평가(농식품부, 고용부)를 통해 추가 확대 추진('24.下)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곳곳에서는 구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내국인으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호텔·콘도업계 또한 마찬가지로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 현장에서는 “K-POP 열풍 등으로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실상은 객실을 청소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애로를 밝혀,
-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호텔·콘도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인력난 해소방안을 강구하기로 밝힌 바 있으며,
 -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업종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고용허가제 기본원칙”을 토대로 E-9 외국인력 신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즉, 생산 가능인구 감소 및 내국인 구직 수요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 내국인 고용이 가능함에도 단순히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대체수요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도입하지 않고,
 - 외국인력이 꼭 필요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정한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가급적 시범사업 등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 등을 모니터링하며 본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원칙을 토대로, 호텔·콘도업계에 대해서도 내국인의 구인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수요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합리적인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외국인력 규모가 늘어난 만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체류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에서 업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예방, 휴식권 보장 및 숙소 제공 등 고용관리 뿐 아니라 체류 및 생활지원에도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무리 말씀

- 오늘 이 자리에서 호텔업계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합리적인 인력난 해소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 여러분들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